



오륜가(五倫歌) | 주세붕

사람 사람마다 이 말씀 드려스라
 이 말씀 아니면 사름이오 사름 아니니
 이 말씀 잇디 말오 **빅호고야 마로링이다**

<제1수>

▶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바님 랄 나흐시고 어마님 랄 기르시니
 부모(父母)웃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갑푼려 하니 하늘 ㄹ이 업스랏다

<제2수>

▶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동과 향것과를¹⁾ 뉘라셔 삼기신고
벌와 가여미아 이 뜨들 문져 아이
 흘 ㄹ으매 두 뜯 업시 소기지나 마음생이다

<제3수>

▶ 주인(임금)에 대한 중(신하)의 도리

지아비 받 갈라 간 디 **밥고리** 이고 가
반상²⁾을 들오디 눈섭의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도리

형(兄)님 자신 저줄 내 조처 머궁이다
 어와 우리 으아 어마님 너 스랑이야
 형제(兄弟)오 불화(不和)흐면 기도치³⁾라 흐리라

<제5수>

▶ 형제간에 지켜야 할 도리

늘그니는 부모(父母) 잣고 얼우논 형(兄) 곤튼니
 가튼 디 불공(不恭)흐면 어디가 다를고
 랄로셔 ㄹ지어시든⁴⁾ 절호고야 마로링이다

<제6수>

- 주세붕, <오륜가(五倫歌)>

▶ 어른에 대한 아랫사람의 도리

여휘 풀이

- 1) 동과 향것과를 - 종과 주인을. 2) 반상 - 밥상. 3) 기도치 - 깨닫지.
- 4) 랄로셔 ㄹ지어시든 - 나이가 많으시거든.



핵심점점

<오륜가(五倫歌)>

시구풀이

<제1수>

• 사람 사람마다 이 말씀 드려스라

- 각 사람들아 이 말씀을 꼭 듣거라
- 본 작품의 제목 ‘오륜가’의 ‘오륜’은 유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인 부자유친(父子有親: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다),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는 의리에 있다), 부부유별(夫婦有別: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다),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차례와 질서에 있다), 봉우유신(朋友有信: 벗과 벗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다)을 가리키는데, 본 작품에서는 ‘봉우유신’ 대신에 ‘형제우애(兄弟友愛: 형과 아우 사이에 있는 애정)’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 참고로 본 작품과 관련하여, <보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륜가 계열 연시조는조선 전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훈민과(훈민: 백성을 가르침) 교화라는(교화: 가르치기) 이념에서 나온(나오다) 양식(양식: 양식)의(의) 문학(문학)의(의) 산물(산물)이다. 주세붕의 「오륜가」는 오륜가 계열 연시조 중 가장 먼저 등장했는데, 16세기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안정(安靖): 안정) 방황하던 백성들에게 성현의 가르침을 알려(알려) 작가는 가족 차원에서부터(차원) 크게는 사회·국가 차원의 상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목적) 창작되었다. 하지만 양반 사대부들의 이념을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주입하고 있어서(주입)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 이 말씀 아니면 사름이오 사름 아니니

-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되 사람이 아니라 할 것이니
- ‘이 말씀’ 곧 성현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이하의 내용이 가족 차원에서부터 사회, 국가 차원까지의 바른 도리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성현의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한 법칙이나 규정)로 여겨 따르다면 풍속이 좋아진다는 얘기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이 말씀 잇디 말오 빅호고야 마로링이다 <제1수>

- 이 말씀 잇지 말고 꼭 배워두도록 하거라
- ‘배호고야 마로링이다’, ‘소기지나 마음생이다(절대 속이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제5수))’, ‘개도치라 하리라(사도(士道)나 할 것(제5수))’ 등을 통해, 본 글이 ‘이 말씀’을 권함에 있어서 권위적으로 주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바님 랄 나ㅎ시고 어마님 랄 기르시니**

-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 부생모욕지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근거로, 수태한 것은 아버지의 은혜이며 이를 태중에서 길러 낸 것은 어머님의 은혜라는 뜻이다.

• **부모(父母)웃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 진정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내 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 화자가 부모님 덕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덕(德)을 갑쁘려 ㅎ니 하눌 ㄱ이 업스랏다 <제2수>**

-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깊은 은혜를 갚으려 하니 (그 은혜가) 저 하늘처럼 끝이 없더라(가이 업스랏다)
-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본 글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동과 향것과를¹⁾**

- 종과 주인을 →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의 구별을 → 신하와 임금이라는 신분의 구별을

• **뉘랏셔 삼기신고 (아마도 하늘이 그란 것이니라)**

- 임금과 신하의 구별이 하늘이 정한 것이라면, 신하는 그 구별을 하늘의 뜻으로 삼아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임금을 섬겨야 할 것이다.

• **별와 가여미야 이 ㅼ뜨들 먼저 아이**

- 별과 개미들이(예왕벌과 여왕개미를 하물처럼 모시는 벌과 개미들이) 이 뜻을(심줄 쉰바 일히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됨) 먼저 알아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 별과 개미라는 자연물을 통해 '군신유의'를 전하고 있는 것이기에, 본 글이 '자연물을 활용해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훤 ㅁ으매 두 ㅼ튼 업시**

- 한 마음으로 두 뜻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이니

• **소기지나 마음생이다 <제3수>**

- 신하된 자로서 결코 임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로다
- 임금을 향한 하나의 마음, 즉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가리킨다)의 태도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도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아비 받 갈라 간 덕 밥고리 이고 가**

- 지아비(남편이) 받 갈라 간 곳에 밥이 담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서

• **반상[飯上]²⁾을 들오되 눈섭의 마초이다**

- 밥상을 들되 아내는 자신의 눈썹에 맞춥니다
- 아내가 밥상을 자신의 눈썹 높이까지 들어 올려 남편에게 바치는 것이기에, 거안제미(擧案齊眉: 밥상을 눈썹과 가지런하도록 공손히 들어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을 이르는 말)의 자세로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공경할 것을, 화자가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밥고리', '반상' 등은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의 마음'을 보여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 밥상을 남편의 눈썹 높이에 맞춘다는 뜻으로, 중국 후한의 양홍과 그의 아내 맹광의 '거안제미의 고사'에서 유래했다. 남편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아내의 태도를 뜻한다.

•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애쓰는 남편) 진실로 고마우신 분이시니 귀하게 대접해야 하는 손님과 다를 것인가 → 손님처럼 남편을 귀하에 모셔야 할 것이로다
- 남편을 귀하게 공경해야 함을 '손이시나 다르실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형(兄)님 자신 저줄 내 조처 머궁이다**

- 형님이 먼저 드셨던 어머니의 젖을 내가 따라 먹습니다
- '아우'의 말이다.

• **어와 우리 아우야 너는 어머님의 애타한 사랑이로다**

- 아, 우리 아우야 너는 어머님의 애타한 사랑이로다
- '형의' 말이다. (대화체)
- 사람의 바른 도리를 말함에 있어서, 본 작품이 '부모와 자식'(제2수), '남편과 아내'(제4수), '형과 아우'(본 제5수) 등과 같은 '가족 관계'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형제(兄弟)오 불화(不和)하면 리도치[리, 라이]³⁾라 ㅎ리라 <제5수>**

- 형제 간에 조화롭게 지내지 않으면 이는 곧 개나 돼지와 다름이 없을 것이로다
- 형제 간의 우애를 오류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 **늘그니논 부모(父母) 갖고**

- 늙은이는 모두 내 부모같고

• **얼우논 형(兄) 곧튼니**

- 어른은 모두 내 형 같으니

• **가튼 덕 불공(不恭)하면 어더가 다를고**

- 내 부모, 내 형과 같은 늙은이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 짐승과 똑 같을 것이로다: 설의적 표현

• **랄로셔 ㅁ지어시든⁴⁾ 절ㅎ고야 마로링이다 <제6수>**

-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링이다
- (내 빈, 내 혈 대듯 깎듯하게) 절을 하며 공손해야 할 것이로다
- 가족 안에서의 바른 도리를 가족 밖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본 글의 '작게는 가족 차원에서부터 크게는 사회, 국가 차원의 상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 특징

- 성격: 교훈적, 직설적, 계도적
- 교훈성과 문학성의 조화가 나타남.
-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함.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주제를 드러냄.
- 대구법, 설의법, 비유법 등의 다양한 표현법이 나타남.
- 조선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관을 드러내며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많음.

✓ **오륜의 덕목**

제1수	제2수	제3수	제4수	제5수
유교적 윤리의 기본인 '오륜'을 잊지 말 것을 주장함.	하늘과 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언급함.	신하들에게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질 것을 강조함.	'기안제미'의 고사를 인용하여 지아비(남편)에 대한 공경을 보여 줌.	늙은이와 어른을 부모, 형님처럼 모시는 태도를 강조함.
서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 **넷째 수(4연)의 시상 전개**

초시 - 중시	중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 기안제미(學案齊眉)의 고사 인용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도리 설의법을 통한 의미 강조

✓ **다섯째 수(5연)의 시상 전개**

초시 (아우의 입)	중시 (어머 입)	종시 (아우의 입)
형제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람	형제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장성함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하기를 당부

※ **주세붕, <오륜가(五倫歌)>**

- 주제: 인간이 지켜야 할 오륜의 도리 강조
- 해제: 이 작품은 주세붕이 항해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오륜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백성들에게 계도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가부장적인 가정 질서와 국가 질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사인 제수에서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밝힌 후 나머지 각 수에서 유교적 덕목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하나씩 노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념적인 주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인간의 일상적 삶을 통해 표현한 점과 순우리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한 점이 돋보인다.
- 구성
 - [제1수]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
 - [제2수]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 [제3수] 주인(임금)에 대한 종(신하)의 도리
 - [제4수]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도리
 - [제5수] 형제간에 지켜야 할 도리
 - [제6수] 어른에 대한 아랫사람의 도리



1. 3수를 현대어로 해석해보세요.
2. 시조의 음보와 음수를 적어보세요.
3. 도덕적 교화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 X]
4. 각 연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훈성이 강화되고 있다. [O X]
5. 3수는 가족을 위해 벌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함을 주제로 삼고 있다. [O X]
6. 3수의 주제 의식을 한자성어로 하면 '군신유의'와 '일편단심'이다. [O X]
7. 5수는 하늘이 내려준 운명에 순응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 [O X]
8. 각 수의 초장에 대구법을 사용하여 시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O X]

9. 5수와 6수는 각각 부자유친, 장유유서를 강조하고 있다.
[O X]
10.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유교적 이념을 드러냄
[O X]
11. 이 작품을 통해 당대 시대의 규범적 가치를 알 수 있어.
[O X]
12. 4수에 알맞은 한자성어를 적어보세요.
[O X]
13. 5수는 설의법을 통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 X]
14. 6수에 삼강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O X]
15. 각 연의 종장을 명령형 종결로 끝맺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 X]

 오륜가(五倫歌) | 주세붕

[개념있는 킵샘]

- ① 종과 주인의 구별을 누가 만드셨는가-별과 개미들이 이 뜻을 먼저 알았구나-한마음에 두 뜻 없도록 속이지나
마음소서
- ② 4음보, 3.4조, 4.4조
- ③X ④X ⑤X ⑥O ⑦X ⑧X ⑨X ⑩X ⑪O ⑫부부
유별 ⑬X ⑭X ⑮X